미래지향 실질협력 … 동맹 업그레이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일 제3차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 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3차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조명해본다.

신뢰 기반 안보·사회·문화 협력 확대

■ 한미동맹 강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으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균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이 전략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미 FTA 빠른 시일내 비준 노력

■ FTA 및 민간 교류

한미 FTA의 비준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한미 FTA 의회 비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양국간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확대가 한미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및 한국 대학생 5천명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인적교류 확대 등 민간 교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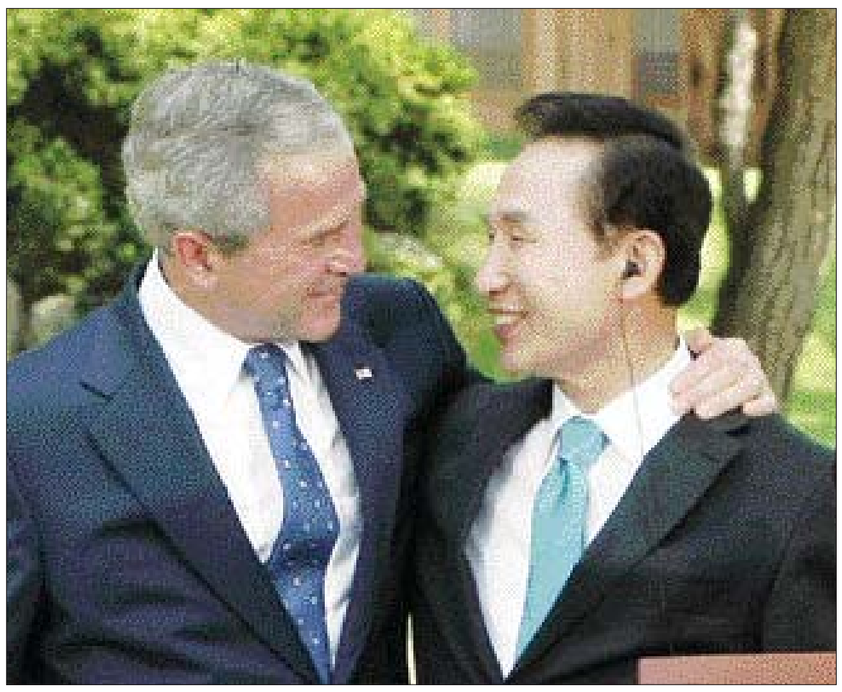
평화 재건 위한 비군사적 지원만

■ 아프간 파병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도 거론됐으나 양 정상이 시각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동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및 아프간 등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적시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한국군의 아프간 추가 파병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간 파병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아프간 파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 어깨동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어깨동무를 하며 우호를 과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양국 공조 통해 北 핵폐기 압박

■ 북핵·북 인권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성실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지원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내용

한미동행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재배치 합의 지속 이행 한미동행 미래지향적 구조로 발전
한미FTA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 인식 재확인 자국 입법부와 협력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 노력
북한문제	북핵 3단계 조치 통한 핵무기 및 현존 핵계획 완전 포기 촉구 관계 정상화 과정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 의지 확인 부시 대통령, 새 정부 상생·공명 대북정책 지지 부시 대통령,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유감 표명 및 남북대화 촉구
포괄적 협력	청정개발과 기후변화 공동 대처 우주탐사·우주과학·원자력평화 이용 긴밀 협력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 프로그램(WEST) 신설 한국 연내 사증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노력

MB "아프간 파병 논의 없었다"

■ 한미정상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부시 대통령 재임중 미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영유권 문제는 해결했으나 명칭은 여전히 리앙쿠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가.

▲(이 대통령) 마지막 질문은 부시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나와 부시 대통령은 서로 임기 중, 그리고 연내에 (비준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바로잡아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답변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부시 대통령)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 드렸다. 유일하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말씀드린다.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권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이 대통령에게)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검증을 잘 따라올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고 예전과 같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 7년반 동안 중국인을 만나 왔고 나의 메시지는 똑같다. 종교인들을 계속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하고 이들은 사회 원동력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예배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베이징에 가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고 미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 세계 많은 사람이 이제까지 북한이 하는 자세를 보면 6자회담의 검증을 철저히 받을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어려운 상대를 갖고 6자회담을 이 시점까지 끌고 온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어떤 자세를 표하든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12일부터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쯤 이뤄지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시 대통령) 물론이다. 이제 12일이면 아마 해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할 일이 매우 많다. 검증체계를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어야 한다. 무기를 포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이야말로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대통령 "여기가 독도" 부시 "나도 압니다"

세번째 만남 … 포옹으로 정상 우애 과시

■정상회담 스케치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등 국내에 반미감정이 비등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날 오후 도착, 별다른 일정 없이 시내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에서 일행들과 휴식을 취한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담경호대'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오전 9시30분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청와대 본관 현관 앞에서 재회한 양 정상 내외는 함께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으로 이동,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외국정상 공식환영행사를 지켜봤다. 공식 환영행사 후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함께 본관 집현실로 이동하면서 1층과 2층 계단 사이 벽에 걸린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독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독도입니다(This is Tokdo island)"라고 하자 부시 대통령이 웃으면서 "나도 압니다(I know Tokdo island)"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9시45분 시작돼 당초 예정보다 10분가량 길어진 10시55분께 끝났다.

양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 김윤옥 여사와 로라 부시 여사는 따로 마련된 환담장에서 지난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두 번째 '한미 퍼스트레이디 회담'을 가졌으며 이어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다.

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 야외 잔디밭에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 중에도 양 정상은 자주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때때로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농담 섞인 발언으로 회견 분위기를 살리기도 했다.

양 정상은 회견장을 떠나면서 또다시 어깨동무를 하며 승용차까지 걸어갔으며 이어 티타임을 가진 뒤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